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

2017하반기 외부강의 안내문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은 광주·전남지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출강하여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청소년 철학교실>은 자기 자신,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선생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수강대상	프로그램 명	강의형식	최대수강 인원	강사
고등학생 1~3학년	위로인문학	강의/토론	25명	송광일 (전남대 철학과 박사)
고등학생 1~3학년	인문학, 생각의 융합이야기	강의/토론	25명	서명원 (전남대 철학과 박사)
고등학생 1~3학년	믿음의 이면 안과 바깥, 경계의 탄생	읽기/강의/토론	20명	백송이 (전남대 철학과 박사수료)
고등학생 1~3학년	우리의 생각과 논리적 사고	강의/조별토론	20명	김성부 (전남대 철학과 박사수료)
고등학생 1~3학년	철학이 있는 삶	고전 강독 및 토론	20명	손홍국 (전남대 철학과 박사수료)
고등학생 1~3학년	변화의 주문, 유덕한 삶을 위하여	강의/토론	20명	김성수 (전남대 철학과 박사수료)

신청서 작성 안내

- ① 첨부된 강의안내문 / 청소년철학교실 다음카페의 외부강의게시판에 게시된 강의계획서를 확인
- ② 1개 분반 당 2개의 후보강의를 선정해 1순위와 2순위 강의를 각각 기입
** 강의분반수와 강의횟수는 학교의 예산이나 일정에 따라 미리 정한 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 ③ 담당선생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하여 youthphilo@hanmail.net 으로 신청서를 송부

참고사항

- * 강의별 최대수강인원을 확인해 주세요.
- * 수료증은 4회 이상 강의부터 발급합니다.
- * 강의료 문의는 직접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문의 : youthphilo@hanmail.net
010.9884.0166 (백송이)

* 다음 카페_ <http://cafe.daum.net/youthphilo> (전남대 철학교실 또는 청소년 철학교실 검색)

 twitter.com/youthphilo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위로 인문학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리고 타인과 사회를, 더 나아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이다. '인문학'이란 글로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만이 글과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여 후세대에 전해준다. 이 수업의 목적은 다양한 분야의 책들, 즉 교육, 철학, 과학, 역사, 문학, 예술에 관련된 서적의 일부분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의 명료화' 및 '사유 능력의 확장', 그리고 '선택 능력의 훈련'과 아울러 교양과 지적 능력,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확장시키는 데 있다.

- 진행 : 송광일 (전남대 철학과 박사)
- 강의대상 : 고등학생 1~3학년
- 수강제한인원 : **최대 25명**

회차	세부내용	강의형식
1	공자의 『논어』와 데카르트의 『성찰』 주제: 삼성(三省)과 변태(變態)의 삶이란?	강의 및 토론
2	화이트헤드의 『교육의 목적』와 가드너의 『다중지능』 주제: “아마주어가 될 것인가, 프로그가 될 것인가?”	
3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주제: “왜 우리는 훌륭하게 살아야 하는가?”	
4	순자의 『순자』 주제: “중단하지 않고 한결같이 행하기”	
5	칸트의 『순수이성비판』과 김영민의 『공부론』 주제: “‘변덕’을 원하는가, ‘변화’를 원하는가?”	
6	러셀의 『행복의 정복』 주제: “행복이 내 곁을 떠난 이유는?”	
7	세네카의 『인생론』 주제: “시간을 돈처럼 사용한다면”	
8	주제: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살기”	

※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문학, 생각의 융합 이야기

인간의 본성과 윤리적/도덕적 담론

“생각의 융합, 인문학 이야기”는 윤리적/도덕적 인간의 본성을 묻기 위해서 오래된 미래의 생각들의 이야기를 융합함으로써 그것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앞으로 살며 겪게 되는 난해한 시대적 담론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창의적 상상력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요컨대 인문학 이야기는 “사회와 자연 그리고 인간관계에 관한 근본적 담론”을 주제로 하는 20세기 철학과 거대 담론의 유산인 오래된 철학적 사고를 통해 주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윤리적,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시대를 관통하는 동서양의 씨실과 날실의 사상적 생각들과 사건들을 살피고, 미래로 가는 길을 묻는 것으로 갈무리할 것이다. 시대적 생각들을 모르면 현재의 고민들에 답을 찾기가 힘들다. 특히 20세기 철학자들의 사색들과 과거 동양철학자들의 생각의 ‘관계론’을 꼼꼼하게 살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생각해 낸다면, 역사를 통과한 시대적 고민이 현재 나의 갈등을 해결하는 답이 될 것이다. 즉 이전의 고뇌를 내 고민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아파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문학은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 진행 : 서명원 (전남대 철학과 박사, 영미철학/해석학전공)
- 강의대상 : 고등학생 1~3학년
- 수강제한인원 : **최대 25명**

회차	세부내용	비고
1	비트겐슈타인의 침묵 언어와 공자/동중서의 인과 의를 통해서 도덕적 침묵의 관용과 도덕적 의리의 시대적 필요성을 탐색한다.	개관과 토론
2	후설, 상앙, 한비의 생활세계의 역학적 관계론을 통해서 자연의 본질과 법, 권력과의 상호관계론을 고찰한다.	강의와 토론
3	하이데거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존재를 둘러싼 싸움과 형제에게 칼을 겨누는 날부끄러운 시대적 참혹상의 도의적 책임을 논한다.	강의와 토론
4	사르트르의 이단아적 존재론과 흄스의 리바이어던의 인간론을 비교/고찰하고, 인간의 자연상태에 대한 냉혹한 관점을 이해한다.	강의와 토론
5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의 진화론과 인간문화의 연구에 대한 통합적이고 신체화 된 접근법을 말하는 인지과학을 통해 본 주제인 시대적 윤리의 무의미성/의미성을 탐색한다.	종합과 토론

※ 강의 내용은 상황과 일정에 따라 수정 가능하며,

종합 토의 결론은 학문간 생각의 융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지과학의 윤리적/도덕적 담론의 입장에 따를 것이다.

믿음의 이면

안과 바깥, 경계의 탄생

고된 고등학교 생활을 버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수업은 이런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통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에 대한 무한한 신뢰. 혹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현실 인식. 아니면, 모두가 그렇게 하니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군중심리 등등.

이러한 말들 자체는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하게 학생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치 이 점을 확인시켜주듯, 시험은 치러도 치러도 항상 눈앞에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부정할 수 없는 굳어진 현실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이 강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적인 믿음이 어떻게 학생을 지배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의 학생의 삶을 만들어냈는지를 일상을 분석함으로써 추적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진행 : 백송이 (전남대 철학과 박사수료)
- 강의대상 : 고등학생 1~3학년
- 수강제한인원 : **최대 20명**

회차	세부내용	강의방식
1	학생의 현실은 어떤 믿음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읽기, 토론 및 강의
2	거짓말을 권하는 사회	
3	믿는 것과 보는 것 : 우리는 어떻게 현실을 읽어내는가?	
4	믿음의 이면 : 믿음의 안과 바깥	
5	혐오의 이면 - '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	
6	경쟁이라는 이데올로기	

※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적 사고

우리의 생각은 종잡을 수 없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생각은 어떤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사유하는 포괄적인 모든 사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 중에는 논리에 의지한 사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당연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판단하기도 하지만, 때론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두 생각은 경험적으로 인간의 당연한 사유 방식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사고의 방식은 각기 다른 국면에서 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수학적 문제를 풀 때는 논리적 사고가 감정적인 생각보다 더 유용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사유의 방식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의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생각을 개인의 사적인 영역과 학문의 공적인 영역으로 구분해 보고,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 유용하다고 보이는 논리적 사고를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강의는 주로 참여자들의 토의와 발표 등으로 진행되고, 때로는 강의와 글씨기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진행 : 김성부 (전남대 철학과 박사수료)
- 강의대상 : 고등학생 1~3학년
- 수강제한인원 : **최대 20명**

회차	세부내용	강의방식
1	생각이란 무엇인가?	강의, 조별 토의
2	변화하는 철학의 개념과 상대주의적 관점	
3	객관적 체계로서의 전통적 논리학	
4	사적인 영역의 논리와 감정적 설득력	
5	공적인 영역의 논리와 논리적 설득력	
6	공적영역의 논증과 오류	
7	논리적 설득력, 조별 토론하기1	조별 토의
8	논리적 설득력, 조별 토론하기2	

※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철학이 있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대개 생각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은 바로 우리의 생각 자체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생각이 변하면 삶도 세계도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물음에 답하려고 고민했다. 이제 본 강의는 우리가 잘 생각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개의 철학 고전들과 함께 토론하고 탐구해 보고자 한다.

- 진행 : 손흥국 (전남대 철학과 박사수료)
- 강의대상 : 고등학생 1~3학년
- 수강제한인원 : **최대 20명**

회차	세부내용	강의방식
1	생각한다는 것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1권1장/5권2장〉	고전강독 및 토론
2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1권2장〉	
3	철학적 사유와 삶 〈플라톤 『국가』 7권〉	
4	행복을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7장/2권8장〉	
5	개념의 형성 〈어빙 코피 『논리학입문』 3장〉	
6	참된 생각의 길 〈데카르트 『방법서설』 2부〉	
7	한계를 깨닫는 일 〈칸트 『순수이성비판』 선험론적 연역〉	
8	참된 실천의 길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2절〉	

※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주문, 유덕한 삶을 위하여!

눈앞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은 위와 아래, 좌와 우, 앞과 뒤, 강함과 부드러움 등의 차이로 우리에게 인식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차이를 질서로 만들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먼저 태어난 사람과 나중에 태어난 사람, 앞장서는 사람과 뒤따르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이익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 등등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자랑 하기도 하고 우울해 하기도 하며,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면서 기쁨과 성냄과 슬픔과 즐거움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공자는 『주역』의 「계사전」에서 이런 삶 속에서 유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9개 괘(卦)를 통해 설명합니다. 우선 리(履: 밟음)괘로 삶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음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겸(謙: 겸손)괘로 상·하간의 질서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유지됨을 설명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만의 선한 의지와 목표가 상·하의 질서 속에서 새 생명 돋듯이 피어난다는 것을 복(復: 회복)괘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 후 자기 인격의 일관성을 항(恒: 항상)괘로, 아픔과 고통의 극복 방법을 손(損: 손해)괘로, 이득 보는 방법을 익(益: 이익)괘로,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 판단을 예리하게 내리는 방법을 곤(困: 피곤)괘로, 이렇게 만들어진 인격으로 세상에 효과를 내는 방법을 정(井: 우물)괘로, 상황에 따라 알맞은 중(中)을 실천하는 방법을 손(巽: 바람)괘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공자의 이야기를 통해 유덕한 인격과 중용(中庸)에 대해 공부할 여러분을 모십니다.

- 진행 : 김성수 (전남대 철학과 박사수료)
- 강의 방식 : 강의 및 토론
- 강의 대상 : 고등학생 1~3학년

* 본 강의의 수강제한인원은 최대 20명입니다.

회차	세부내용	비고
1	차별은 필요한가? - 차별의 정당한 기준에 대한 토론	『주역』 「계사전」1장
2	상하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려면? - 조화 있는 삶의 방법에 대한 토론	『주역』 「리괘」, 「겸괘」
3	선의지의 시작점은? - 성선설과 생명의 시작에 대한 토론	『주역』 「복괘」
4	일관된 인격이란? - 일관성 있는 사람에 대한 토론	『주역』 「항괘」
5	손해도 잘 보는 방법이 있을까? - 넉넉한 인격과 긴 안목에 대한 토론	『주역』 「손괘」, 「익괘」
6	곤궁할 때 판단력을 유지하려면? - 곤궁한 상황에서의 판단력 유지에 대한 토론	『주역』 「곤괘」
7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인격은? - 덕(德)의 효과와 파생범위에 대한 토론	『주역』 「정괘」
8	원리원칙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 원칙과 융통성에 대한 토론	『주역』 「손괘」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청소년 철학교실

1. 청소년 철학교실의 탄생 배경

청소년 철학교실은 2005년 여름부터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빛고을 철학교실>로 출발하였습니다. 이 빛고을 철학교실은 <교사를 위한 윤리학>과 <청소년 철학교실>, <기초 라틴어 강좌>, <기초 희랍어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2006년 전남대학교 철학과의 정부의 BK21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함으로써 더욱 활성화 되었습니다. <빛고을 철학교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철학교실>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인문강좌>로 세분화되었고, 현재 청소년 철학교실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과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의 주관으로 각 계절마다 (1년 4학기) 다양한 주제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철학교실의 운영 목적

중·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 성인들 못지않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기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혹은 ‘왜 살아야 하는지’ 등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쟁 위주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묻고 대답해볼 기회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전남대 <청소년 철학교실>에서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좁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넓게는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청소년철학교실 외부강의 운영안내

인문학 교육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청소년 철학교실 개설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청소년 철학교실은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와 협약 하에 강사가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출장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는 1복지 당 8회(주 1회, 2시간)로 이루어지며, 원활한 토론을 위해 참여자는 20명 내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 기획 의도나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과 운영방식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철학교실 출장 강의를 지난 2016년 광주·전남지역의 16여개 고등학교에서 28개 분반의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외부 출강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youthphilo@hanmail.net